

일 대학 식품영양학과 학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이승미¹, 조지현^{2*}

¹동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²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 study on Career identity, Satisfaction in major,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for students of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at a University

Songmi Lee¹, Jihyun Cho^{2*}

¹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Dongshin University,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ongshin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학문의 복잡성과 진로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학생의 진로지도 및 생활지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를 이용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후,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변수간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분산분석,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과에 대해 사전에 알고 진학한 경우,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 진학 후 높은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과 향후 진로 결정을 위해서는 식품영양학과에 대해 학과 선택 전에 잘 알 수 있도록 사전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식품영양학과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의식 파악을 통한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among career identity, satisfaction in major,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for students who major in food and nutrition that is complex and has diversity of carrier and to serve as a guideline for career counselling and college life. After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data collected were verifi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2, difference in variabl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as examined using independent t-test, ANOVA, and chi-square te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career identity, satisfaction in major,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students who had prior knowledge of their major showed a higher level of career identity, satisfaction in major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guidance o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hould be provided to students before they decide on their major for their increased satisfaction in major, smooth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career decision. With this data, we recognize the gravity of psychological factor and carrer consciousness may provide base data to practical use of student life and carrer guidance.

Keywords : Career identity, Satisfaction in major, Adjustment to college life, Prior knowledge of the major,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orresponding Author : Jihyun Cho(Dongshin University)

Tel: +82-61-330-3783 email: jhcho@dsh.ac.kr

Received August 25, 2015

Revised October 2, 2015

Accepted October 8, 2015

Published October 31, 2015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 없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기보다 학교 성적 및 졸업 후 취업전망에 따라서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 그로 인하여 대학에서 자신이 속한 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이며 많은 학생들이 입학 후에 전공학과에 대한 부적응을 겪고,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 보고서에 의해 조사된 바 있다[2].

식품영양학과와 경우 많은 학생들이 영양사로의 진로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 영양사의 역할과 업무를 볼 때, 영양사가 지녀야 할 지식과 기능은 매우 넓고 깊어야 한다. 식품학 및 영양학 분야에 관한 많은 지식과 함께 조리에 대한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급식시설관리자로서 급식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한다. 또한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상담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 상담에 대한 기법도 잘 알아야 한다[3]. 그리고 정보화와 경제성장으로 외식과 급식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며, 특히 풍요로운 생활 여건 속에서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급식산업 경영과 영양에 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4].

이를 위해 식품영양학과 학생은 입학과 함께 생리학, 생화학 등의 기초과목을 배워야 하고 관련된 여러 자격증 뿐만 아니라 국가고시를 통과하여야 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학과의 특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과를 선택하게 되면 학생들은 스트레스,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 함께 학과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며 학습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성적 불량, 대학의 면학분위기 저해와 자신의 선택을 신뢰하지 못하고 대학 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5].

대학생활적응은 학생들이 학업면, 대인관계 및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사회면,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개인-정서면, 대학환경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뜻한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은 현재의 발달뿐 아니라 이후 대인관계와 취업에 이르는 여러 요인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라 할 수 있다[6, 7].

진로정체감은 원활한 대학생활을 영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졸업 후 직업 선택 및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명확하고 안정적인 진로정체감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으며[8], 전공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진로를 정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함을 의미한다[9].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10],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새롭거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긍정적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만족할 수 있어, 대학생활에서도 갈등에 대처할 때 적합한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다[11].

식품영양학과 학생의 경우 기본적인 영양사로의 진로와 더불어 외식산업 및 영양상담사로의 여러 경로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식품영양학과 학생에 대한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문의 복잡성과 진로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척되지 않은 진로 및 대학생활 관련 여러 변수를 조사하여 진로동기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식품과 영양을 비롯하여 조리에 대한 지식 및 급식 경영, 영양 교육 등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게 되는 식품영양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 1)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및 자아존중감을 알아본다.
- 2)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고교 계열 차이에 따른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비교한다.
- 3)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 정도에 따른 진로관련 의식, 진로정체감, 전공만족

도, 대학생활적응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비교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D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자는 130명이었는데, 불성실한 응답자 5명과 만학도 1명을 제외하고 분석에는 124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다.

2.2 연구도구

2.2.1 진로정체감

Holland, Daiger, Power[12]가 개발한 진로상황검사(MVS, My Vocational Situation)의 정체감 척도(Identity scale) 18문항을 Kim[13]이 번안하고, Kwon과 Kim[14]이 간호대학생에 맞게 14문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연구자가 식품영양학과 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Kim[13]의 척도는 18개의 문항에 “그렇다” 또는 “아니다” 중에 응답하게 되어 있고, 이 중 “아니다”에 응답한 반응의 총 수로 계산하였으나, Kwon과 Kim[14]의 척도는 4점 척도로 수정하여 합산한 점수를 계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5점 척도(1점-매우 그렇다, 5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을 하게 한 후, 5점 만점의 평점을 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신뢰도 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 신뢰도 및 요인 적재량이 낮은 1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으며,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각각 목표(5문항), 진로정보(4문항), 흥미와 재능(4문항)으로 명명하였다. Kim[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였고, Kwon과 Kim[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864이었는데,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목표 .780, 진로정보 .808, 흥미와 재능 .630이었다.

2.2.2 전공만족도

Kim과 Ha의 연구[15]에서는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과만족 척도를 34문항으로 구성

하였는데, 이 중 Lee[16]가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추출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 ‘매우 그렇다’에서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역코딩 후 요인별 5점 만점의 평점을 구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929였고,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일반만족 .930, 인식만족 .878, 교과만족 .814, 관계만족 .841로 나타났다.

2.2.3 대학생생활적응

대상자의 대학생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6]이 개발한 대학생생활적응(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 SACQ) 척도를 Hyun[17]이 번안하고, Kim[18]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Hyun[17]의 연구에서는 67문항을 9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Kim[18]의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적응 24문항, 사회적응 20문항, 개인-정서적응 16문항, 대학환경적응 16문항의 4개의 하위척도로 나뉘는데, 대학환경적응 16문항은 사회적응과 8개 문항이, 학업적응과는 1개 문항이 각각 중복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숙사나 하숙, 자취생에게만 해당하는 3개의 문항을 제외하여 64문항으로 계산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생활적응이 높음을 뜻한다. Baker와 Siryk[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이고, Hyun[17]의 연구에서는 .92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78에서 .83사이에 분포되어 있었고, Kim[7] 연구에서는 .90이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938이었다. 하위요인별로는 학업적응 .895, 사회적응 .877, 개인-정서적응 .761, 대학환경적응 .859였다.

2.2.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서는 Coopersmith [18]가 제작한 Self-Esteem Inventory를 Kang[1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Kang[20]의 연구에서는 예-아니오의 이분형 척도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다른 척도와 마찬가지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자기존중(5문항), 타인과의 관계(7문항), 지도력과 인기(6문항), 자기주장(7문항)의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존중 요인 중 1문항, 타인과의 관계 2문항, 자기주장 1문항 등 4문항의 내적일관성이 낮아 제외하고 2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Coopersmith[18]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88$ 이었으며, Kang[19]의 연구에서도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r=.86$ 이었다. 이 연구와 비슷하게 5점 만점으로 변환하여 측정한 Kim[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이고, 하위요인별로는 .69에서 .73사이에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868이었다. 하위요인별로는 자기존중 .609, 타인과의 관계 .814, 지도력과 인기 .704, 자기주장 .604이었다.

2.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2를 이용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 시 회전방법은 베리맥스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정도의 차이는 t-검정과 분산분석으로 비교하였고,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정도에 따른 진로에 대한 의식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고교 출신 계열 및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 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학교생활만족도,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으로 비교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남학생은 3.2%에 지나지 않았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31.5%, 2학년이 23.4%, 3학년이 25.0%, 4학년이 20.2%였다. 학과를 선택한 시기는 고등학교 재학 중 37.1%, 대입원서 접수 전 28.2%, 대입원서 접수기간 26.6%였으며,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에 진로를 변경하여 입학한 학생은 8.1%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4(3.2)
	Female	120(96.8)
Grade	Freshman	39(31.5)
	Sophomore	29(23.4)
	Junior	31(25.0)
	Senior	25(20.2)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In high school	46(37.1)
	Before application period	35(28.2)
	Application period	33(26.6)
	Change major or graduate	10(8.1)
Track of alma mater	Non-academic high school	6(4.8)
	Academic high school (Liberal arts)	46(37.1)
	Academic high school (Science courses)	67(54.0)
	The others	5(4.0)
Motivation of application for th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Aptitude or Interest	50(40.3)
	Recommendation of related industries workers	5(4.0)
	Employment possibilities	20(16.1)
	Academic standing	17(13.7)
	Parents or Advice from others	27(21.8)
	Others	5(4.0)
Prior knowledge of department	Known well	5(4.0)
	Known a little	80(64.5)
	Known the name	33(26.6)
	Unknown	5(4.0)
	Non-response	1(8)
Post-graduation career decision	Nutritionist	64(51.6)
	Food company	37(29.8)
	Government employee	3(2.4)
	Graduate school	4(3.2)
	Others	11(8.9)
	Not yet decided	5(4.0)
N		124(100.0)

출신고교는 일반고의 이과 출신이 54.0%, 문과 출신이 37.1%였고, 전문계고 4.8%, 기타 4.0%였다. 식품영양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동기는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가 40.3%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 또는 주위의 권유로 (21.8%), 취업전망을 보고(16.1%), 성격에 맞추어(13.7%) 등의 순이었다. 식품영양학과에 대한 사전 지식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잘 알고 있었다 4.0%,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64.5%)이 몰랐던 사람(이름만 들어봤다 26.6%, 전혀 알지 못했다 4.0%)보다 더 많았으며, 현재 계획 중인 졸업 후 진로는 영양사(51.6%)나 식품회사(29.8%) 등 관련 직종이 대부분이었으나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 (8.1%)를 희망하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경우도 4.0%로 나타났다.

3.2 응답자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 활적응, 자아존중감

응답자의 진로정체감 총점의 평균은 2.39점(±0.53)이었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목표 2.87점(±0.71), 흥미와 재능 2.88점(±0.74), 진로정보 2.61점(±0.64)이었다. 전공만족도의 총점의 평균은 3.19점(±0.59)이었는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하위요인은 학생-교수간 관계 만족도 3.24점(±0.77), 인식만족도 3.24점(±0.66)였고, 교과만족도 3.16점(±0.74), 일반만족도 3.12점(±0.81)의 순이었다. 대학생활적응의 경우에는 총점의 평균은 3.00점(±0.42)이었고, 적응 정도가 가장 높은 하위요인은 대학 환경적응으로 3.16점(±0.55)이었고, 사회적응 3.11점(±0.53), 개인-정서적응 2.92점(±0.44), 학업적응 2.79점(±0.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총점의 평균은 3.20점(±0.46)이었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자기존중 2.85점(±0.63), 타인과의 관계 3.72점(±0.70), 지도력과 인기 3.12(±0.52)점, 자기주장 3.06점(±0.50)이었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aptation, Self-esteem

Category	Min.	Max.	Mean±SD
Total Career Identity	1.23	3.69	2.39±.53
Goals	1.20	4.40	2.87±.71
Interests & Talents	1.00	4.25	2.88±.74
Carrer Information	1.00	4.00	2.61±.64
Total Major Satisfaction	1.11	4.67	3.19±.59
General Satisfaction	1.00	5.00	3.12±.81
Acknowage Satisfaction	1.00	4.83	3.24±.65
Curriculum Satisfaction	1.00	5.00	3.16±.74
Student-Faculty relation Satisfaction	1.33	5.00	3.24±.77
Total College Adaptation	1.47	4.13	3.00±.42
Academic Adaptation	1.29	4.08	2.79±.48
Social Adaptation	1.41	4.65	3.11±.53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1.50	4.19	2.92±.44
College Environment Adaptation	1.20	4.60	3.16±.55
Total Self-Esteem	1.81	4.33	3.20±.46
Self Respect	1.25	4.50	2.85±.63
Relationships with others	1.80	5.00	3.72±.70
Leadership and Popularity	1.67	4.33	3.12±.52
Self-Assertiveness	1.17	4.33	3.06±.50

3.3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aptation and Self-esteem

<i>r</i> (<i>p</i>)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aptation	Self-Esteem
Career Identity	1			
Major Satisfaction	.596 *** (.000)	1		
College Adaptation	.668 *** (.000)	.640 *** (.000)	1	
Self-Esteem	.453 *** (.000)	.319 *** (.000)	.604 *** (.000)	1

3.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정도의 차이

응답자의 학년이나 출신고교에 따라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Table 4. Level of Prior knowledge of department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ies	Prior knowledge of department (Mean±SD)	<i>t</i> or Welch(<i>p</i>)
Grade	Freshman	2.71±0.61	.623(.603) [†]
	Sophomore	2.62±0.73	
	Junior	2.65±0.66	
	Senior	2.80±0.41	
Track of alma mater	Academic high school (Science courses)	2.67±0.66	-.471(.638)
	The others	2.72±0.56	

[†]Because of the contrary to the Homoscedasticity, Welch-test

3.5 고교 출신계열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

식품영양학과와 수업을 생리학, 유기화학, 생화학 등의 자연계열 관련 과목이 많아 수업시간이나 현장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자연계열(이과) 출신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적응이나 학업 수행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에 자연계열 출신 여부에 따른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자연계열 출신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Table 5).

Table 5. Level of Variables according to Track of alma mater

	Track of alma mater(Mean±SD)		t(p)
	Academic high school (Science courses)	The others	
Total Career Identity	2.37±0.51	2.41±0.55	-.377(.707)
Goals	2.85±0.70	2.89±0.72	-.317(.752)
Interests & Talents	2.87±0.71	2.89±0.79	-.216(.830)
Carrer Information	2.59±0.59	2.64±0.69	-.404(.687)
Total Major Satisfaction	3.14±0.56	3.25±0.63	-.977(.330)
General Satisfaction	3.07±0.77	3.18±0.85	-.751(.454)
Acknowage Satisfaction	3.20±0.59	3.29±0.72	-.736(.463)
Curriculum Satisfaction	3.06±0.71	3.29±0.77	-1.708(.090)
Student-Faculty relation Satisfaction	3.21±0.76	3.27±0.77	-.488(.626)
Total College Adaptation	2.97±0.39	3.03±0.46	-.788(.432)
Academic Adaptation	2.78±0.45	2.80±0.53	-.213(.832)
Social Adaptation	3.09±0.52	3.13±0.54	-.395(.694)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2.91±0.38	2.94±0.50	-.404(.687)
College Environment Adaptation	3.12±0.51	3.21±0.60	-.924(.357)
Total Self-Esteem	3.16±0.50	3.24±0.42	-1.019(.310)
Self Respect	2.81±0.65	2.90±0.61	-.815(.417)
Relationships with others	3.66±0.77	3.78±0.61	-.968(.335)
Leadership and Popularity	3.10±0.55	3.15±0.47	-.474(.636)
Self-Assertiveness	3.02±0.50	3.12±0.51	-1.120(.265)

Table 6. Level of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Prior knowledge of department

Variable	Categories	Prior knowledge of department(n(%))		$\chi^2(p)$ or Fisher's Exact Test
		known	unknown	
Motivation of application for th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Aptitude or Interest	45(52.9)	5(13.2)	20.755(.000) [†]
	Recommendation of related industries workers	4(4.7)	1(2.6)	
	Employment possibilities	10(11.8)	9(23.7)	
	Academic standing	8(9.4)	9(23.7)	
	Parents or Advice from others	15(17.6)	12(31.6)	
Decision maker of one's major	The others	3(3.5)	2(5.3)	9.985(.027) [†]
	Oneself	43(50.6)	12(32.4)	
	Parents	21(24.7)	14(37.8)	
	Acquaintance	12(14.1)	11(29.7)	
	Recommendation of professor	7(8.2)	0(0.0)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Mass media like internet	2(2.4)	0(0.0)	11.830(.007)
	In high school	40(47.1)	6(15.8)	
	Before application period	20(23.5)	14(36.8)	
	Application period	18(21.2)	15(39.5)	
Post-graduation career decision	Change major or graduate	7(8.2)	3(7.9)	19.045(.001) [†]
	Nutritionist	49(57.6)	14(36.8)	
	Food company	27(31.8)	10(26.3)	
	Government employee	1(1.2)	2(5.3)	
	Graduate school	4(4.7)	0(0.0)	
	Others	3(3.5)	8(21.0)	
	Not yet decided	1(1.2)	4(10.5)	

[†] More than 25% cells have expected values less than 5, Fisher's Exact Test

3.6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정도에 따른 진로관련 의식의 차이

식품영양학과에 대해 사전에 알고 진학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진로관련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았다. 이 때, 기대빈도가 5미만인 셀의 개수가 25%를

넘는 경우에는 카이제곱 검정 대신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사전지식이 있었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전공 선택 동기, 학과를 선택한 시기, 전공 선택 시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 향후 계획 중인 진로에 모두 차이가 있었

Table 7. Level of Variables according to Prior Knowledge of department

	Prior Knowledge of department(Mean±SD.)		t(p)
	known	unknown	
Total Career Identity	2.52±0.51	2.11±0.46	2.548(.012)
Goals	3.04±0.69	2.49±0.61	4.277(.000)
Interests & Talents	3.02±0.72	2.58±0.72	3.145(.002)
Carrer Information	2.68±0.63	2.44±0.64	1.966(.052)
Total Major Satisfaction	3.32±0.58	2.91±0.52	3.630(.000)
General Satisfaction	3.33±0.75	2.67±0.76	4.494(.000)
Perceived Satisfaction	3.34±0.68	3.00±0.53	2.713(.008)
Curriculum Satisfaction	3.22±0.77	3.04±0.69	1.210(.229)
Student-Faculty relation Satisfaction	3.29±0.80	3.12±0.69	1.139(.257)
Total College Adaptation	3.11±0.34	2.76±0.49	3.966(.000)
Academic Adaptation	2.92±0.41	2.51±0.52	4.324(.000)
Social Adaptation	3.22±0.46	2.87±0.59	3.478(.001)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2.98±0.40	2.80±0.51	2.129(.035)
College Environment Adaptation	3.30±0.47	2.86±0.61	4.312(.000)
Total Self-Esteem	3.25±0.47	3.10±0.42	1.690(.094)
Self Respect	2.91±0.66	2.72±0.56	1.293(.198)
Relationships with others	3.78±0.70	3.61±0.68	1.228(.222)
Leadership and Popularity	3.16±0.54	3.04±0.45	1.244(.216)
Self-Assertiveness	3.11±0.47	2.98±0.56	1.560(.121)

다. 먼저, 전공선택 동기는 사전에 지식이 있었던 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52.9%) 등 주도적인 경우가 많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학생은 부모님이나 주변의 추천(31.6%)이나 성적이 맞추어(23.7%)와 같이 수동적인 경우가 더 많았다. 전공선택 시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 역시 사전 지식이 있었던 경우는 본인인 경우가 50.6%였지만, 사전 지식이 없었던 경우는 부모(37.8%)나 지인(29.7%)인 경우가 많았다.

학과를 선택한 시기는 사전 지식이 있었던 경우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결정한 학생이 47.1%였는데, 사전 지식이 없었던 경우는 원서접수 직전(36.8%)이나 원서접수기간(39.5%)에 선택한 사람이 더 많았다. 졸업 후 계획 중인 진로의 경우에도 사전 지식이 있었던 학생은 영양사(57.6%)나 식품회사(31.8%) 등 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사전 지식이 없었던 학생은 전공과 관련 없는 취업을 계획하고 있거나(18.4%)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경우(10.5%)도 있었다.

3.7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 정도에 따른 진로 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

식품영양학과에 대해 사전에 알고 진학한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Table 7). 진로정체감은 하위요인 중 진로정보를 제외하고 모든 요인에서, 전공만족도는 일반만족도와 인식만족도에서,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모든 요인에서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모두 사전에 학과에 대해 알고 입학한 학생들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은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 정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고찰

높은 대학진학률 만큼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잘 영위하는 것은 사회에 성공적으로 발을 딛고 평생학습 사회의 일원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잘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하다[11]. 오늘날 식품영양학과 의 졸업생은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대학, 연구소 등 학계는 물론 산업계에서도 고도의 기술과 능력을 지닌 다변화 되어가는 사

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21].

그러나 요즘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막연히 영양사나 조리사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전공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데에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식품영양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전혀 되지 않은 진로 및 대학생활 관련 여러 변수를 조사하여 진로동기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진로지도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13, 14], 본 연구에서는 총점의 평균은 2.39점(±0.53)이었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목표 2.87점(±0.71), 흥미와 재능 2.88점(±0.74), 진로정보 2.61점(±0.64)이었다. 이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Cho의 연구 [5]에서의 진로정체감 2.77점(±0.68)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간호대학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Kwon과 Kim의 연구 [14]에서 나타난 2.27점 보다는 높은 점수였으며,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정체감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처럼 이 연구에서도 학년별로 진로정체감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공만족도는 Kim과 Ha의 연구 [15]에서 학과만족을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라고 정의하면서 자신이 현재 소속된 학과가 자신의 이상이나 진로에 대한 기대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이는 외부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의 총점의 평균은 3.19점(±0.59)이었는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하위요인은 학생-교수간 관계 만족도 3.24점(±0.77), 인식만족도 3.24점(±0.66)였고, 교과만족도 3.16점(±0.74), 일반만족도 3.12점(±0.81)의 순이었다. 이는 5점 척도의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여 볼 때 전공만족도 수준은 보통 이상이라 할 수 있으나, 3년제 유아교육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의 연구 [22]와 비교하여 볼 때 3.58점(±0.54)보다는 낮게 나타났고, 부산, 경남 지역 보건계열 학과에 대한 Shin의 연구 [23]의 3.38점(±0.62), 방사선학과 3.40점(±0.57), 임상병리학과 3.37점(±0.57), 물리치료학과 3.45점(±0.50)과 비교할 경우는 약간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학과에 대해 사전지식을 가지고 입학한 학생의 전공만족도는 3.32점(±0.58)로 사전지식 없이 입학한 학생의 2.91점(±0.5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이는 다른 보건계열 학과의 전공만족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경로로 대학 입학 전 학과에 대해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이 연구의 결과는 총점의 평균은 3.00점(±0.42)이었고, 적응 정도가 가장 높은 하위요인은 대학환경적응으로 3.16점(±0.55)이었고, 사회적응 3.11점(±0.53), 개인-정서적응 2.92점(±0.44), 학업적응 2.79점(±0.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제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Cho의 연구 [5]의 3.06점(±0.29) 및 의학계열 대상의 Shim의 연구 [24]에서 나타난 3.02점과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학과에 대해 사전지식을 가지고 입학한 학생의 경우는 3.11점(±0.34)로 사전지식 없이 입학한 학생의 2.76점(±0.49)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원활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입학 전 학과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수준이 높을수록 새롭거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긍정적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만족할 수 있어, 대학생활에서도 갈등에 대처할 때 적합한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다 [11]. 이에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해 살펴보면 그 결과 총점의 평균은 3.20점(±0.46)이었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자기존중 2.85점(±0.63), 타인과의 관계 3.72점(±0.70), 지도력과 인기 3.12점(±0.52)점, 자기주장 3.06점(±0.50)이었다. 3년제 유아교육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의 연구 [22]에서는 3.52점(±0.47)이었고, 물리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Son 등의 연구 [25]에서는 3.01점(±0.48)였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과 Hwang의 연구 [9]에서는 3.32점(±0.43)을 나타내었다. 이는 다른 연구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으로 대체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대학입시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의 교차지원이 가능하고 학생들 또한 문과 이과 교차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영양학과는 이과에 속하는 전공이고, 이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고등교육과정에서 문과영역을 이수한 학생들이 가끔 전공을 힘들어 하는

경향을 나타낼 때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나 대학생활 적응에서 고등학교 출신계열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Table 5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상과는 달리 자연계열 출신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업지도를 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학습의 욕을 북돋아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입학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과 비교할 때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이 변수들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높은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을 통해 전공과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향후 진로 개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습에 대한 지도 외에도 진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학 입학 전 학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대학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최근 각급 학교에서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중학교 자율학기제의 도입으로 직업 및 전공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니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학생의 진로지도 및 생활지도에 도움이 되고자 수행하였다.

응답자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고등학교 출신계열에 따른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과에 대해 사전에 알고 진학한 경우,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그동안 식품영양학과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학생들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공의 성격이나 특성, 자격증 및 자격시험의 종류에 따른 진로정체감 및 대학생활적응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일 대학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므로 대규모 단위의 조사를 실시하여 식품영양학과 학생의 지역별 비교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과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실증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

- [1] J. S. Jung, M. J. Jeong, I. Y. Yoo,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 20, No. 1, 27-36,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1.27>
- [2] K. H. Kim, H. S. Kim,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 No. 1, 7-20, 2000.
- [3] M-H. So, S-S. Yoon, S. Namkung, "A study on the Prolongation of Educational Term of th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In Junior College", *Korean J. Food & Nutr*, Vol. 4, No. 1, 9-20, 1991.
- [4] J-K. Kim, H-M. Oh, Y-S. Lee, "A Study on the Reorganized into the Three-Year Period of Education of th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in Junior College", *Korean J. Food & Nutr*, Vol. 19, No. 1, 14-21, 2006.
- [5] I. Y. Cho,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5, 2937-2945,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5.2937>
- [6] R. W. Baker,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 31, No. 1, 179-189, 1984.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31.2.179>
- [7] H. W.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ystem patterns and career decision-mak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5.
- [8] H. S. Kim,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areer education program as curriculum on vocational identity, career decision level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0, 35-46, 2007.
- [9] Y. S. Kang, S. K. Hwang,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7, 3301-3309,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7.3301>

[10]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11] A. K. Chung, J. S. Kim, J. H. Kim, "The Effects of Self-Respect,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n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and Learning Persistence", *J. Engineering Education reserch*, Vol. 16, No. 6, 11-18, 2013.

[12] J. L. Holland, D. C. Daiger, P. G. Power,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y Press.1980.

[13] B.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14] Y. H. Kwon, C. N. Kim, "Effect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Vol. 13, No. 2, 216-229, 2002.

[15] K. H. Kim,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 No. 1, 7-20, 2000.

[16]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4.

[17] J. W. Hyun,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on the performance of task",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1992.

[18] S.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Consulting Psychologists Pr. 1967.

[19] J. G. Kang, "Effects of self-concept, career maturity and school achievement upon occupational status aspi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6.

[20] J. E. Kim,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Subjective Happiness, and Educational Faith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2010.

[21] S-Y. L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ood and Nutrition Curriculum Corresponding to the Change of the Time", *Chung-Ang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20, 135-154, 2004.

[22] H. K.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steem and the satisfaction with major of college student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J. Young Child Studies*, Vol. 17, 27-43, 2014.

[23] S. G. Shin, "Comparison of Satisfaction on Each Major Dept. of Health-Related Universities Located in Busan and Gyeongnam", *J.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34, No. 2, 131-140, 2011.

[24] H. Y. Shim,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or of Stydents in Different Major Fields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13.

[25] C. S. Son, S. G. Song, S. Y. Yoon, H. J. Kwon, Y. W. Song, K. H. Lee, R. Hwang, S. W. Kim, H. Jung, "The Survey of the Motive of Admission to Physical Therapy College, Learning Satisfaction, and Career Orientation, and its Correlation Analysis of Self Esteem", *J. KSSPT*, Vol. 9, No. 1, 19-26, 2013.

이 송 미(Songmi Lee)

[정회원]



- 1999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 2006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식품영양학, 영양교육, 영양생화학

조 지 현(Jihyun Cho)

[정회원]



- 1998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통계학과(이학사)
- 2001년 8월 :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11년 2월 : 동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1998년 1월 ~ 2014년 2월 : (사) 한국 사회조사연구소 선임연구원
- 2014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연구방법론, 자료분석